

#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사라지는 '소설'

## 대여점 영향으로 소설출판 퇴조현상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 집계에서 '소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94년 연말 베스트셀러 종합순위를 보면 20위 안에 모두 9종의 국내의 소설이 등위에 올라 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내 대형서점의 집계엔 뜻밖에도 단 2종의 소설만이 10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잠시 주춤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의 집계상황을 보면 매년 그런 시기가 있어왔으므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 소설책 판매부진의 장기화 조짐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늘상 있어왔던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출판계에서는 소설책의 이같은 판매부진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대여책방 때문'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다. 6천개를 밀도는 서점의 수를 훨씬 앞선 8천여곳에 이르는 책대여점이 소설의 주 독자층을 깡그리 뺏어갔다는데다. 베스트셀러라 불리는 대부분의 소설이 '읽어치우면 그만인' 수준으로 내려앉으면서 독자들은 "굳이 구입하기보다는 빌려 보는 편이 훨씬 낫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대여책방을 선호하게 된 것. 당연히 서점의 판매고가 현저한 하락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광고수지를 맞추기 위해 많은 소설이 3권짜리 시리즈로 출판되면서 소설 한 질을 사려면 2만원 정도의 지출이 필요했던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여책방을 이용하는 편이 나은 게 사실이다. '5단통 광고'로 베풀을 시도하기 위해 3권짜리를 전략적으로 고집하던 출판사들이 자충수를 둔 셈이다. 고객의 대부분을 뺏아온 책대여점의 입장은 어떤가. 호황을 누리던 대여책방 업계 역시 현재로서는 미소만 지을 수는 없는 형편.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불어난 책대여점은 양서를 구입하기 힘든 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베스트셀러 취급업소'로 전략하면서 경쟁업체의 증가로 대여료 깎아주기에 급급한 상태다.

서울 신촌에 위치한 S문고의 K과장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책대여점에서 판매도 공공연히 한다"고 전한다. 대학천 도매상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얘기는 이같은 소문이 근거

###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집계에서

소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 소설책의 이같은 판매부진은

서점수보다 많은 대여책방의 여파라는 게 출판계 중론이다.

### 출판사들 역시 소설출판보다는

실용적인 대중교양서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작품성이

무시된 상업소설의 범람이 가져온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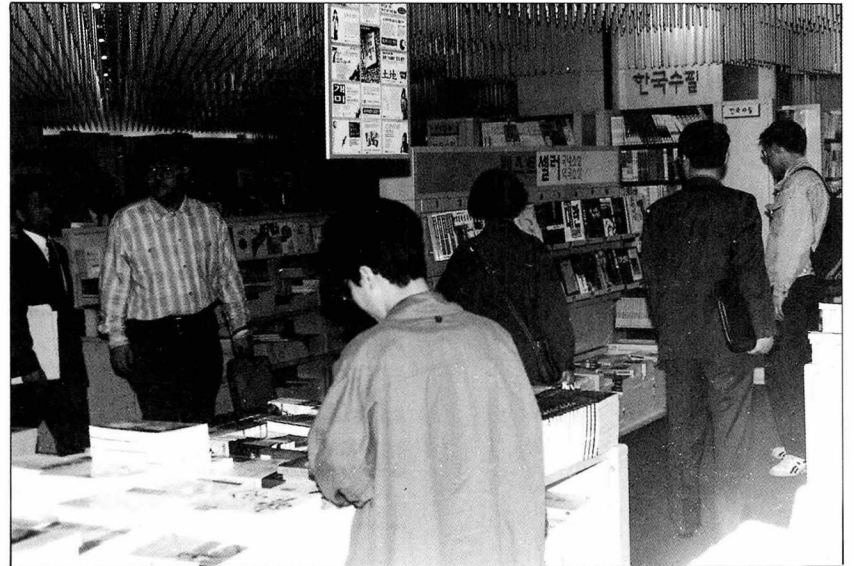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에 따르면 "대여점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대여시기가 지난 한물 간 책들의 처분인데, 최근들어 대부분의 대여책방들이 그같은 책들을 헐값에 판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소설 출판을 꺼리는 경향

대여책방으로 인해 소설책의 매기가 떨어지자 출판사들 역시 소설출판을 꺼리고 있다. 도서신문이 올 3월, 43개 출판사를 상대로 상반기 출간예정인 도서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실용적인 대중교양서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설은 응답한 3백여종 가운데 60여종으로 지난해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조사에 나타난 수치보다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당행본 출판이 출판의 꽃이라면, 소설출판은 꽃중의 꽃이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설출판이 밀리언셀러 내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많은 출판사들이 그런 방법을 실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책대여점의 등장으로 '한탕 노리기'의 부작용이 표면화되었고, 광고를 하면 할수록 대여점 좋은 일반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대다수의 출판사들이 소설출판 자체를 기피하는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연출하고 있다."

도서출판 서울기획의 이대식 사장의 말처럼, 요즘 출판계에서는 소설책을 내고 광고를 할 때는 2, 3만부 정도만 나갈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춘 광고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 이유는 일반소매점 판매와 대여점이 사가는 기본부수를 고려해야지 그 선을 넘을 정도로 광고를 하면 손해만 본다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 집계에서 소설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사진은 교보문고 소설 베스트셀러 코너.

공식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간으로 소설을 낸 출판사들은 초판부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아무리 잘 나갈 것 같은 작품도 무리하게 초판을 찍지 않을 뿐더러, 재쇄시기 역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도매상의 주문만 믿고 쇠를 거듭했다가는 반품에 치일 것이 뻔해서다. 여기에 제작비의 7, 8할을 차지하는 종이값 인상과 선거특수에 따른 발주의 어려움 등이 겹쳐 출판사들은 넋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출판장르의 핵심 소설출판이 퇴조현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한 출판전문가들의 견해가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우선 출판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매우 크다. 한쪽에선 "기본적 출판의식도 없이 장삿속만 차리려는 몰지각한 출판인들에게 소설출판이 악용돼왔던 근래의 그릇된 풍토가 이같은 현상을 계기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없진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점 판매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설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서점의 경영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출판사들의 잇따른 도산도 우려된다"는 견해 역시 공존한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속에서 꽤 알려진 출판사들이 하루가 멀게 부도를 내고 있는 게 요즘의 출판계 현실이기도 하다.

### 상업소설 범람에 의한 퇴행현상

유례를 찾기 힘든 소설출판의 퇴행에 대한 문인은 이렇게 전한다.

"작품성이 무시된 상업소설의 범람이 가져온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자칫 좋은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모순이 빚어지는 안될 것이다. 소설책은 그저 한번 읽고 버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장서해야 하는 책이란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한다."

출판사나 서점이 대여책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작가들 또한 인세 수입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많은 소설이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집계되지 않는 책대여점의 순위에는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소설출판이 시들해졌다고 소설이 안 읽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얼마나 읽혔는지가 노출되지 않는 것뿐이다.

한탕주의에 의해 왜곡된 출판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정화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긍정적 시각과 가뜩이나 벅찬 "불황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반대 견해가 팽팽한 지금, "대안은 따로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있다면 무리한 출판과 광고를 자제하면서 타장르를 개발하는 정도가 소극적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소설출판이 이뤄질 때까지는.

<최태원>